

Tecnoroach Attachment를 이용한 상하악 가철성 국소의치의 수복증례

나종찬, 신상완, 서규원 고려대학교 치과학교실

고정성 수복으로 치료가 곤란한 부분 무치악 증례에서 가철성으로 이것을 해결할 경우 사용되는 유지장치로는 clasp, attachment, telescopic crown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Clasp RPD는 저렴한 치료비와 함께 설계 및 제작이 다른 방법에 비해 용이하므로 실제 임상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clasp가 노출되는 심미적 문제로 clasp의 사용을 환자가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 때 술자는 attachment의 사용을 고려하게 된다.

기존의 clasp에 비하여 attachment가 갖는 장점은 심미적이라는 것, 그리고 RPD의 retention과 stability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지대치에 교합이 가해지는 점이 치근쪽에 위치하게 되어 torquing force가 감소되고, 교합압을 적절하게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Distal extension RPD의 경우 attachment 선택의 중요한 요소는 잔존치조골과 지대치에 가해지는 force의 균형분배라 할 수 있다. 지대치의 치주건강도가 좋고 잔존치조골의 흡수가 심한 경우에는 지대치로 교합력을 더 많이 분산시킬 수 있도록 rigid type이 추천되고 반대로 지대치의 치주건강도가 좋고 잔존치조제의 support가 좋은 경우에는 잔존치조제로 force를 더 많이 분산시킬 수 있도록 resilient type이 추천된다고 할 수 있다.

Tecnoroach attachment는 resilient type 중 rotational attachment로서 male part는 plastic pattern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지대치의 wax up 시에 paralleloometer를 이용하여 부착할 수 있고 female은 gold alloy로 제작되어 있다. 이 attachment의 장점으로는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며, 제작과정이 용이하고, 치관길이에 따라 female을 약 1.5mm까지 삭제할 수 있고, 용적이 작아서 인공치의 배열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본 증례는 상하악 Class I (Kennedy 분류)의 부분무치악을 심미성을 고려하여 attachment RPD로 수복하여 주었다. 지대치가 많지 않고 치주적 bone level이 낮은 상태였으며, 반면 잔존치조제의 상태는 양호하였으므로 상하악 모두 resilient type의 attachment인 Tecnoroach attachment를 선택하였다. Tecnoroach attachment로서 기능압을 좀 더 치조제쪽으로 분산시킬 수 있었으며, 일반적인 RPD에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clasp를 대신하여 매우 심미적인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